

“어린이 근시, 눈에 맞는 치료법 선택해야”

어린이들의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가 활발하게 시행되면서 그 효과와 치료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시는 성장기 만 7~9세 시기에 주로 나타나 초등학교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며 성장이 끝나는 만 18세까지 진행될 수 있다.

이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도근시로 이어지기 쉽다.

고도근시는 실명 위험이 있는 망막변성, 시신경 기능 약화 등을 유발하고 망막박리, 녹내장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소아 근시가 고도근시로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자녀의 눈 상태에 따른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안액인 아트로핀 투여는 고도근시로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안구 길이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매일 혹은 격일로 투여하면 된다. 눈 상태에 따라 취침 전 한 번 정도만 점안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0.05%의 저농도 아트로핀이 치료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아트로핀은 필요에 따라 점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드림렌즈에 비해 사용이 간편하다.

하지만 드림렌즈와 달리 시력교정 효과가 없어 평소 안경이나 렌즈 착용이 필요하고, 꾸준한 효과를 확인하며 사용해야 한다. 제때 점안을 하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투여 후 눈부심이나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드림렌즈는 별도의 연명제한은 없지만 어느 정도 수면시간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수면시간을 충족할 수 있는 초등학교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드림렌즈는 수면 시 착용해 각막의 형태를 변화시켜 근시와 난시를 교정해주는 특수 콘택트렌즈로, 일반렌즈와 달리 가운데 부분이 주변보다도 평평해 수면 시 각막의 중심부를 눌러 각막의 굴

점안액 아트로핀, ‘간편함’ 장점 드림렌즈, 시력저하 등 부작용 ↓ 근시 억제 소프트렌즈도 ‘각광’



절력을 낮춰준다.

착용하고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정상시력을 찾을 수 있어 안경 없이 생활이 가능하며, 소아청소년기에 사용할 경우 근시 진행을 늦출 수 있다.

드림렌즈는 아트로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거리 시력저하, 눈부심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없고, 시력교정 효과로 안경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하루 8시간 정도를 착용해야 하고, 하드렌즈 특성상 착용 적응시간이 필요해 아트로핀에 비해 사용이 불편할 수 있다.

근시 진행을 늦추기 위해 두 가지 치료법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드림렌즈를 사용하다가 효과가 크지 않으면 아트로핀 점안을

추가할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갑자기 치료를 중단할 경우 급격히 근시가 진행되는 ‘리바운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근시 억제 일회용 소프트렌즈는 듀얼포커스 디자인으로 근시교정 효과와 근시완화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굴절이상을 교정하고 안축장 성장을 늦춰 근시 진행을 완화한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6년간의 장기임상관찰 결과 8~18세에 이르는 모든 대상군에서 근시 진행속도를 약 50% 가량 완화시킨다고 조사됐다.

근시 억제 일회용 소프트렌즈는 매일 낮에 착용하고 세척이 필요 없는 일회용 렌즈로 착용감이 우수하고 시력변동이 있을 때도 수조정이 쉽게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안경과 병행이 가능하다.

또 일회용이라 세척액을 따로 구비할 필요가 없고 아이들이 혼자서 착용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

드림렌즈보다 근시 교정 폭이 넓어 10디옵터 가량의 고도근시까지 처방이 가능하지만 난시가 있는 경우 교정하기 어렵고 착용 시간이 길어 건조감이 좀 더 유발될 수 있으며 드림렌즈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근시 진행 억제는 근시 진행이 활발히 이뤄지는 성장기에 가능한 한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트로핀, 드림렌즈, 근시 억제용 일회용 소프트렌즈 사용을 결정했다면 안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아이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아이에게 적용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효과적으로 시력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도움말=이태희 원장
보리안과병원

HEALTH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이승헌 전남대병원 교수

‘LG화학 미래의학자상’ 수상

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이승헌 순환기내과 교수(사진)가 병원 최초로 ‘제15회 LG화학 미래의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5일 밝혔다.

‘LG화학 미래의학자상’은 한국 의학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세계 의학의 선두주자가 될 젊은 연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제정됐다.

전문의와 임상강사 재직 기간 중 국내외 SCI급 학술지에 제1저자로의 연구 활동을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600만원이 수여된다.

심사위원들은 지원자들의 국내외 SCI급 학술지에 발표된 제1저자 논문만을 중심으로 임상강사 연차, 총 논문 수, 연간 논문 수, 논문 중 가장 높은 피인용지수(IF·Impact Factor), 두 번째로 높은 IF, IF 총합 등을 평가했다.

이 교수는 급성심근경색증과 관상동맥질환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 활동을 지속, 현재까지 SCI급 학술지에 주저자 논문 28편을 포함해 총 63편의 논문을 발표할 점을 인정받았다.

이 교수는 “의학 연구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병원 최초로 미래의학자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심혈관 질환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끈기있게 지속하고, 묵묵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건협 ‘워커스 워크는 챌린지’ 마무리 453명 참여...1인 평균 7918보 걸어

한국건강관리협회회는 지난 한 달간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한 ‘워커스 워크는(Workers, Walk On)’ 챌린지를 마무리했다. 25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개인과 기업이 건강증진과 함께 탄소 저감에 동참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건협 건강증진위원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24개 기업의 근로자 453명이 참여했다.

전체 참여자 중 324명(71.5%)은 하루 평균 5000보씩 걸어 30일간 15만보를 달성했다. 102명(22.5%)은 하루 평균 1만보씩 총 30만보를 달성했다.

15만보를 달성한 사람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을, 30만 보를 달성한 사람에게는 추가로 샌드위치 쿠폰이 제공됐다.

챌린지를 통한 전체 총 걸음 수는 1억523만 1635보(1인당 하루 평균 7918보)로, 거리로 환산했을 때 7만3662km로 나타났다. 이는 지구 1바퀴 반 이상에 해당하며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9만 6303kg 감소시키고 소나무 2만3318그루 심은 효과다. 참여자 만족도도 96.2%가 ‘개인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다’ 답했을 정도로 높았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다학제 진료시스템 ‘주목’

각과 전문의 20명 참여 폐암다학제진료팀 구성 환자별 맞춤형 치료법 결정...1500회 이상 협진

“20여명의 전문의가 협진으로 최고의 치료법 찾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암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다학제 진료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암 사망 원인 질환으로 꼽히는 폐암의 진료와 예방, 연구를 담당하는 폐암다학제진료팀은 20여명의 의료진이 함께 환자들에게 맞춤형 치료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5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따르면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로 구성된 폐암다학제진료팀은 빠른 진단과 환자의 특성에 맞는 최선의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 다학제 협의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폐암다학제진료팀은 병원 개원 이후 주 2회씩 다학제 협진 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 현재까지 150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진료뿐 아니라 젊은 의료진의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결성된 다학제 대면 진료팀은 부장인 오인재 교수를 주축으로 오형주 호흡기내과 교수, 윤주식 흉부외과 교수, 김용협 방사선종양학과 교수가 환자와 가족들과 직접 대면하며 검사 결과와 치료 계획을 상담 중이다.

이 결과 지난해 화순전남대병원의 전체 폐암 확진 환자 중에 평균 30%가 다학제 대면 진료를 받았다. 이는 암 적정성 평가에서 제시하는 목표치(12.6%) 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아이디어를 모으다 보니 다학제 진료팀의 공동연구 성과도 빛나고 있다.

오인재 교수는 화순전남대병원 인체 자원은행(바이오뱅크)을 활용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에 열린 ‘인체 자원은행 사업 심포지엄’에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

최근 4년 동안 1000건 이상의 폐암 환자 인체 자원(조직·혈액·기타 검체)을 수집해 연구 기반을 구축해 다수의 과학기술 논문 추가 인용 색인(SCIE)급 국제 논문을 출판한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올해는 한국의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항암 방사선 동시 요법 후 더발루마브(durvalumab) 면역치료 결과를 세계폐암학회 공식 학술지인 흉부종양학회지(Journal of Thoracic Oncology)에 출판했다.



주 2회씩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학제 협진 회의 모습.

또 최근에는 연구를 통해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흉부질환에서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in thoracic disease)’ 책자 발간에도 참여했다.

해당 책자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임상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의 결과가 화순전남대병원 폐암 다학제 협진 결과와의 일치율을 포함한 다양한 인공지능 연구 결과를 담았다.

오인재 교수는 “앞으로도 폐암다학제진료팀은 원팀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세계 최고의 암 병원에 걸맞은 수준 높은 진료와 연구 활동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국내최초 보울라디+K-낙산균

보울라디

새로운 프로바이오틱스

사카로마이시스
보울라디 285mg

국내 특허
K-낙산균 배합

믿을 수 있는
HACCP 인증

식품첨가물 4Free
온 가족 안심 섭취



문의 전화 1588-8529 Vitamin House

※ 본 제품은 일반식품입니다. 세계 소화기 학회 최고등급 원료